

영원한 도움

소식지 Vol.3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VOL.3

발행일 2025년 9월 1일

발행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발행처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15라길 2-18

전화 (02) 2171-1611

메일 solph70@hanmail.net

홈페이지 <https://www.solph.or.kr>

인쇄처 세가출판사

비매품

03 권두언 |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마음을 드높이

06 교회와 함께 | 참된 사랑의 특성

10 말씀과 함께 |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14 묵상과 나눔 | 온 세상과 온 민족 안에 살아 계신 하느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17 가톨릭 상식 | 순교자 성월

18 책과 함께 |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

20 문화 속으로 | 영화 〈작은 아씨들〉

모든 이에게 모든 것

24 선교 화보 | 카자흐스탄

26 선교 이야기 | 보셔요, 그이가 오잖아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넘어 오잖아요
돌비석과 밭고랑 사이

30 선교 체험 | 나는 세상의 빛이다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34 선교지 소식 | 베트남 · 필리핀 · 페루

40 사도직 이야기 | 본원 영양팀

한마음 한뜻

48 수도회 소식 · 설립 93주년 축하 서신

54 성모자매회 소식

60 수도원 체험 | 소울핏 피정, 하느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시간

62 후원자 명단

65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

66 국내외 선교지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생사의 기로에서 김대건 신부님과 한국의 순교 성인과 복자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오.”

레오 14세 교황은 2025년 5월 10일 추기경단 대상 첫 공식 연설에서 AI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로 지목하며 “AI가 인간 존엄성, 정의, 노동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2025년 다보스 포럼 메시지를 통해 “AI는 효율성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죽음으로써 신앙을 증거하며 천주교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천주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을 위한 복음의 원칙을 변함없이 선포해야 한다”라고

레오 14세 교황이 강조하신 것처럼 이 시대 천주교인으로 살아가는 핵심은

그 어떤 상황에도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창세 1,27) 하셨고,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기에 사람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창세 2,7).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가장 귀한 존재이며 하느님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 신앙 선조들은 죽음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담고 있는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마음을 드높이

가정에서 체험하는 사랑의 기쁨은
또한 교회의 기쁨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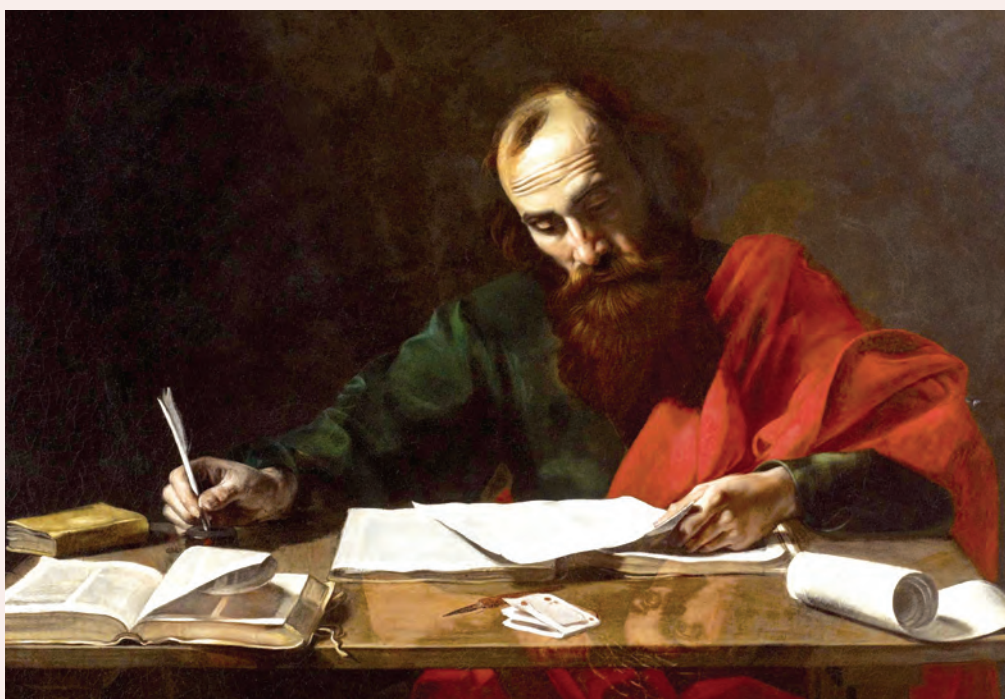
최봉자 레지나 수녀, 「나자렛 성가정」



“참된 사랑의 특성”

1코린 13,4-7의 의미

글 | 양성부



발랑탱 드 볼로뉴, 「서간을 쓰는 사도 성 바오로」, 17세기 작품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하느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느님의 ‘인내’는 당신의 진정한 권능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이 자기 방식으로 되기를 기대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키우지 않으면, 화를 내며 반

응한 것에 대하여 늘 변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대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내가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깊은 연민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내어 주는 행복, 곧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내주고 봉사하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고귀함과 위대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우리를 우리 자신 안에 가두어 둡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이의 성공을 존중하며, 다른 이를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이가 저마다의 삶에서 서로 다른 선물을 받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이 그들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려면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을 길러야 합니다. 삶에서 지배의 논리와 가장 똑똑하거나 권위 있는 이를 가리는 경쟁의 논리는 사랑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1베드 5,5)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자세와 말과 행동은 거칠거나 완고하지 않습니다. 공손은 “감수성과 사심 없는 마음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날마다 다른 이의 삶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신뢰와 존중을 더욱 다지는 감수성과 예의 바른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사랑이 내밀하고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자유를 더욱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너그럽습니다

사랑은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서서 무상으로 베푸는 것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루카 6,35 참조) 다른 이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요한 15,13 참조) 최고의 사랑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감지하는 것과 그 화에 굴복하여 그것이 우리 태도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에페 4,26). 우리가 악과 싸워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면의 폭력은 언제나 거부하여야 합니다. 분노가 다른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스며들어 있다면 해롭습니다.

사랑은 용서합니다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지난날을 고백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로 다른 이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다른 이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을 하는 이가 다른 이를 위하여 선을 실천할 수 있거나 다른 이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에, 자신도 행복하게 살게 되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이의 행복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줍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이라거나 참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완전함을 지니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사랑받는 이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느



님의 빛을 알아봅니다. 사랑은 신뢰하고 자유를 허용하며, 모든 것에 대한 통제와 소유와 지배를 단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자율성을 키우고 세상과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게 해 주며, 인간관계를 풍요롭고 넓게 해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변하여 성숙해지고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몰랐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의 희망입니다. 비록 어떤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

도 하느님께서 어느 모로 선을 이끌어 내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어려운 상황도 굳건히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모든 부정적인 흐름에 맞서는 힘,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선을 위한 결단을 보여 줍니다. 강한 사람은 증오의 고리, 곧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중에서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루카 10,32

글 | 양성부 총평의원 허수진 수진루시아 수녀



빈센트 반 고흐, 「착한 사마리아인」, 1890년 작품

살아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

나는 그림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특히 시대를 초월한 명화(名畫)를 좋아하는데, 그 앞에 가만히 머물다 보면 언제나 깊은 마음의 울림을 느끼고 영혼의 치유와 위로를 얻곤 한다.

얼마 전 친구 수녀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전시회 티켓이 생겼다며 함께 가자고 연락을 해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침부터 급히 처리할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좀 늦게 되었다. 전시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수녀와 만나 서둘러 전시관으로 들어갔다.

고흐는 목사가 되려고 했을 만큼 신앙심이 깊었지만 그 바람이 좌절되자 화가가 되어 그림을 통해 세상을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선한 지향과는 달리 그의 삶은 가난과 고독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녔던 정신병 등으로 고통받았다. 그럼에도 그의 그림이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어쩌면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하며 세상에 기쁨과 위로가 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예수님과 닮아서인지도 모르겠다.

전시회는 기대했던 만큼 좋았다. 멋진 작품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1890년도 작품인 「착한 사마리아인」(루카 10,29-37 참조)이 유독 큰 울림을 주었다. 첫눈에는 강도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얻어맞아 거의 죽어 가던 사람과 다 죽어가는 그를 살려보려고 애써 나귀에 태우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림 속 사마리아인은 힘찬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생명력이 넘쳐 보였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림 왼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피해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린 사제와 레위인’(루카 10,31-32 참조)도 눈에 띄었다. 길 위에서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강한 사랑의 역동성이 느껴지는 사마리아인과 비교해서 마치 죽은 나무 막대기 같았고 색깔 또한 칙칙하고 흐리멍덩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향하는 것이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고흐는 그림을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간직하고 돌아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묵상을 하던 중이었다. 그날의 복음은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내용이었다.



아담 요르단스, 「착한 사마리아인」, 1616년 작품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

갑자기 전시회를 보러 가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사실 그 날 전시관 입구로 들어서며 한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나는 스치듯 보았다. 약속 시간에 한참을 늦어 걸음을 재촉하던 터라 그의 모습을 본 것과 그를 스쳐 지나간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재빠르게 앞서가는 내 등 뒤로 “여기 콘서트홀이 어디예요?” 하고 묻는 그의 가녀린 목소리. 하지만 이미 약속 시간도 많이 지났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를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에 그를 외면했다.

그리고 나서 고흐의 그림이 정말 좋더라며, 특히 「착한 사마리아인」이 마음에 남는다며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였다.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고, 내가 외면한 그 시각장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한참 동안 망연히 앉아 있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내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지만, 실상 진실하게 말씀의 빛 앞에 설 때면 어떤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여과 없이 마주하게 한다(히브 4,12 참조). 특히 삶에서 뭔가 어긋났을 때 하느님은 언제나 내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고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고 물으시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

여주신다. 나는 그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해 ‘지나가 버린 길 반대쪽’에 서 있었다(루카 10,32 참조). 그리고 그림 속에서 본 ‘죽은 나무 막대기’ 같은 레위인이 바로 나의 뒷모습이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도 해주실 수 없는 일

번번이 넘어지는 초라한 내 모습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내게 주님께서는 자상하게 타이르시는 것 같았다.

“루시아야! 최후의 심판 때 내가 왜 너의 잘못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대신하여 속죄하였으므로(2코린 5,21 참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하지만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지. 그것은 네가 살면서 선택하고 행한 사랑의 행위들! 그것은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그 사랑은 영웅적 행위이거나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돼. 그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네게 도움을 부탁하는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마태 25,45)을 돕는 것으로 충분하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깨어 있는 마음으로 ‘작은 사랑을 놓치지 않고 실천했는가’야.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사랑의 기쁨』 93항)이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는 두 개의 길이 있는 것 같다.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애덕을 실천하는 것! 물론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나라는 ‘~ 하지 않는’ 것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닐 것이다. 그 나라는 반드시 ‘~을 해야’ 갈 수 있는 나라, 사랑을 해야 갈 수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은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기워 갚을 기회-보속-가 있지만, 놓쳐 버린 사랑의 기회(때)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자비하신 주님께서 다행히 내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하루는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봉헌의 기도』 중)고 주신 하루이며, 결국 자매들과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마태 25,45)을 깨어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손길로 돌보고 도우라고 주신 하루이다. 그렇게 언제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새 아침이다!



“온 세상과 온 민족 안에 살아 계신 하느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베트남 해외 선교지 체험을 다녀와서

글 | 제2수련 문선희 마리리아 수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는 2005년부터 제2·3수련 중에 있는 수도자들에게 해외 선교지 체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희망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특별한 은총의 해인 2025년 제2수련 수녀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했다.

박해의 역사 안에서 신앙 유산을 지켜온 호치민 신앙 공동체

해외 선교의 많은 것을 체험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일정이었지만 베트남 분원에서 시간은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교회에 대한 저의 무지와 편견을 깨우쳐 주었고, 과거 우리 신앙 선조들이 교우촌을 형성하며 믿음과 희망으로 걸어왔던 신앙과 순교의 여정을 베트남 신자들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치민 ‘땀하이 성당’ 근처 호치민 분원이 위치한 마을에는 우리 선조들처럼 18세기 말 박해 시대에도 신앙을 지키고자 가족과 마을 단위의 신앙 공동체인 교우촌을 형성하여 살아가던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계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 특별히 성모님께 대한 애정과 사랑, 자비의 예수님께 대한 공경, 순교자들에 대한 신심이 지극한 신자들이었고, 공산당원이 아니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베트남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숨은 희생’으로 여전히 백색 순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분원 주변 교우촌은 마을 곳곳에 성모상을 두고 그 주변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정도



호치민 땀하이 성당 주일학교 은총 잔치 행사 중에 자모들과 함께
왼쪽부터 하숙란 숙란모니카 수녀, 필자, 문연희 연희세레나 수녀, 박영혜 마리빅토리아 수녀

로 성모 신심이 대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15분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성당의 종소리가 곧 있을 5시 새벽 미사 시간을 알려주고, 매일 미사에 참례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수도자들의 일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득메 누이꾸이 성모 성지’ 하느님의 자비주일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에 대성전을 가득 메운 신자들의 기도와 찬미, 자비의 예수님 성화가 새겨진 깃발 행렬, 성체 거동 및 성체 강복 행사 등을 통해 보았던 베트남 교회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조상들의 언어’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은 큰 감동과 함께 오래도록 긴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2,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과 300여 명의 주일학교 교사가 함께 부르는 성가와 우렁찬 기도가 들려오는 땀하이 성당 주일 오전 7시 어린이 및 중·고등학생 미사 또한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은총 잔치 행사로 주일학교 자모들과 단체들이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은 가운데 각 수도회 별로 준비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성소 주일 행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2018년 8월 베트남 성소 지원 자매들의 초기 양성을 위해 파견되었을 당시 호치민 분원에는 7명의 베트남 지원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단 1명의 지원자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주님의 포도밭에서 함께할 하느님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다낭 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심에 물들이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자애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다낭 분원은 ‘동심킨더가든 응우한선 다낭’을 운영하며 영유아부터 만 6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간접 선교의 현장으로, 수녀들의 삶과 헌신을 통해 어린이들의 동심(童心) 안에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모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잔잔히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미사통상문을 베트남어로 다 외웠다는 소임 수녀들의 숨은 노력을 들었을 때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하려는 그들의 열정과 의지, 베트남 민족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낭시 ‘짱찌 순교자 성당’, ‘라방 성모 성지’, ‘짜끼우 성모 성지’를 순례하면서 베트남 신자들이 성모 신심과 순교자 신심이 크고 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금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말 13만 명에 달하는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던 박해 시대에 발현하신 라방 성모님은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짜끼우 성모님은 천사들과 함께 발현하여 작대기를 흔들며 신자들을 죽음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베트남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성모님은 ‘우리 엄마’였던 것입니다. 라방 성모님과 짜끼우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묵주기도를 바치며 지금까지 성무일도 중에 ‘성안드레아 등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 정도로만 기억해 왔던 베트남 순교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정의 끝에 ‘바다의 별 성모님’께 들러 여정을 마무리하는 주모경을 바치면서 2025년 대희년에 희망의 순례자가 되었던 우리가 보편 교회와 베트남 교회를 위한 기도의 동반자로 ‘여기에 있었다’는 마음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과 수도 공동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애써 준 호치민 분원과 다낭 분원 수녀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새로운 사도직 현장에서 열매 맺어가고, 신학교 입학생 정원을 줄이는 등 종교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 교회에 자비의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희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온 세상과 온 민족 안에 살아 계신 하느님 당신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9월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순교자 성월로 지내나요?



순교자 성월 9월은 피의 순교로 세워진 한국 천주교회의 특별한 성월로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가 기해박해 및 병오박해 순교 79위를 복자품에 올리고, 9월 26일을 ‘한국 순교 복자 축일’로 선포하면서부터 한국 천주교회는 9월을 ‘한국 순교 복자 성월’로 정하여 순교 복자들을 공경해왔습니다.

9월은 한국 순교 성인 103위 중 33위-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이 순교한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순교자들을 공식적으로 공경하게 되는 가경자(可敬者)의 탄생도 1857년 9월에 있었습니다.

이후 병인박해 순교 24위가 복자품에 오르고(1968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앙 대회 및 103위 시성식(1986년)에서 한국 순교 복자 103위가 모두 성인품에 오르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그 명칭을 ‘한국 순교자 성월’로 바꾸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순교 복자 축일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명명하였습니다.

성월(聖月)은 말 그대로 거룩한 달, 거룩하게 지내는 달입니다. 특별히 9월 순교자 성월은 순교자들을 기리며 그들의 신심이나 덕을 본받고, 특별한 지향으로 거룩하게 보내면서 신앙 쇄신의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기 위하여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

글 | 성서와함께 편집부 장윤이 마리아가페 수녀



안셀름 그륀 지음 · 루돌프 발터 엮음 | 성서와함께

다람쥐 쳃바퀴 돌듯 살아가는 일상

피정을 하고 마음이 충만해지면, 좋은 강의를 통해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희망에 부풀어 새로운 결심을 한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관계에 끌려다니거나 일을 미루는 생활방식을 바꾸겠다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잠시도 손에서 휴대 전화를 놓지 못하는 습관을 버리겠다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이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채 하루도 가지 않아 다람쥐 쳃바퀴 도는 듯한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보며 좌절한다.

아침부터 오늘 닥칠 일들이 나를 짓누르고, 사소한 것도 결정하지 못하며, 결심은 늘 흐지부지된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문제를 회피하며, 시간에 쫓겨 다닌다. 관계가 틀어질까 봐 거절하지 못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좀처럼 쉬지 못한다.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불평과 분노가 몸에 뱌으며, 기쁨을 잃어버렸다. 쉼 없이 나를 다그치는 삶의 패턴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 삶을 주도하라는 초대

안셀름 그륀 신부는 이 책을 통해 삶을 더 가볍게 하는 마흔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자세가 있다.

첫째, 서두르지 마라.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기로 자라는 데는 긴 세월이 걸린다. 따라서 신속한 비결을 찾지 말고, 한 가지 방법을 몸에 익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날마다 실행하고 싶은 의식(儀式)을 택하라. 추상적인 결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여야 힘이 있다.

물론 단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어려움은 현실이다. 그렇지만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굴복하느냐,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도할 힘, 곧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현실성 있는 방법을 택해 꾸준히 연습한다면, 일상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단순하게 살기 위하여 무언가를 감행하기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다.



함께 공감 나누기 해봅시다

- 나의 일상을 무겁게 하는 요소를 한 가지 생각해 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한 달간 실천해 봅시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화 <작은 아씨들>

글 | 이대현 요나(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제목 | 작은 아씨들(Little Women, 2020)

개봉 | 2020년 2월 12일

장르 및 등급 | 드라마, 전체 관람가

러닝타임 | 135분

감독 | 그레타 거윅

출연 | 시얼샤 로넌, 엠마 왓슨, 플로렌스 퓨, 엘리자 스캔런 등

콩코드 마을 네 자매의 천로역정

아이들이 한 노파를 찾아가 행복해질 수 있는 주문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노파는 말합니다.

“인생이 불만족스러우면 너희가 받은 축복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파의 입을 빌려 전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어려움에 처한 남편 친구를 돕다가 재산을 잃고 집안 살림이 궁핍해지자 어머니 마치 부인은 아이들-작은 아씨들에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감사하는 마음은 자존심을 이기는 법이란다.”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자전적 소설 〈작은 아씨들〉 속 네 자매는 어머니 마치 부인의 이런 가르침으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자신들의 재능과 꿈을 하나씩 이뤄갑니다. 억지스럽지도 않고, 지나치게 순종적이거나 숙명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이 유쾌하고, 아름답고, 몽클합니다. 물론 참기 힘든 아픔도 있습니다.

186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작은 마을 콩코드에 사는 네 자매는 순례자 놀이(천로역정)를 하듯 각자의 짐을 지고, 선함과 행복을 향한 갈망을 길잡이 삼아, 고난과 실수를 극복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웃음과 눈물, 존경과 사랑, 믿음과 나눔은 평화에 이르는 여정이며 곧 성장입니다. 1933년, 1949년, 1994년에 이어 2020년 또다시 영화로 찾아온 이유도 그 감동과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사랑과 실천으로 몸소 보여준 자녀 사랑과 교육

어쩌면 〈작은 아씨들〉의 진정한 주인공은 딸들이 아닌 어머니 마치 부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어린 딸들이 가졌으면 하는 모든 미덕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더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돌봅니다. 돈과 지위보다 품성과 인격과 교양이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타인을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 자녀 사랑은 없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스승은 부모이고, 가장 좋은 가르침은 부모의 실천이며, 그로 인한 가장 달콤한 대가는 아이들의 사랑과 존경과 믿음입니다.

영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치 부인은 신앙심이 깊습니다. 그것은 네 딸들에게도 스며듭니다. 그래서 열아홉 살에 죽음을 맞이한 셋째 딸 베스는 하느님에게 자신을 맡기면서 아픔과 슬픔을 희망과 믿음으로 승화시킵니다. 둘째 딸 조는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누구나 ‘광야의 시험’에 들 때가 있다. 하느님의 힘과 온유함을 본받는다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잃지 않고 작가가 됩니다.

마치 부인은 “모든 근심과 희망, 죄와 슬픔을 자유롭게 하느님께 털어놓아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 힘의 원천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60년 전, 한 어머니의 충고와 믿음이 저마다의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의 가슴에까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이제 말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써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덕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체험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측면이 아닙니다”(『찬미받으소서』, 217항).
사랑과 인내로 일하면서
우리는 정의의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그리하여 평화를 증진하고 희망을 새롭게
다지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첫 열매를 맺기까지
때로는 여러 해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는 생태계 전체가 지속성, 충실성,
협력, 그리고 사랑으로,
특히 주님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반영하는
그 사랑으로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평화와 희망의 씨앗』 중에서

카자흐스탄 마리아의 집에서, 강정숙 파우스티나 수녀와
첫 영어 수업을 한 옆집 자니아와 아흐메트

2025. 6. 17.

다르면서도 같고, 낯설지만 익숙한 땅



알마티 교구 선교 수녀들을 위한 첫 모임

오은영 은영데레사 수녀와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가 참석했다.
코나예프 피정의 집 2025. 4. 8.



종교인 화합과 일치를 위한 기념행사

종교국 초청으로 종교인 일치를 위한 기념행사에서 식수하고 있는 한 살레시아 수녀와 본당 알란 신부
달티코르간 돔드루즈베 2025. 4. 16.



부활 달걀 만들기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 달걀을 만들고 있는 오은영데레사 수녀와 본당 청소년들
마리아의 집 2025. 4. 19.



'모든 민족 일치の日' 기념행사

한 살레시아 수녀가 본당 폴란드인 신자들, 고려인협회 회장 블라디미르와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달티코르간 중앙 광장 2025. 5. 1.



전승 기념일 행사

전승 기념일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한 살레시아 수녀(왼쪽)와 강정숙 파우스티나 수녀, 본당 올리안 신부, 자르켄 카시미르 신부
우슈투베 박물관 2025. 5. 8.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외국민 사전 투표

투표를 마친 (왼쪽부터) 강 파우스티나 수녀, 한 살레시아 수녀, 오은영데레사 수녀가 총영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알마티 영사관 2025. 5. 21.



본당 카리타스 단체 조직

강 파우스티나 수녀(왼쪽)가 담당하는 본당 카리타스 단체를 조직한 후 기념 촬영. 한 살레시아 수녀도 함께했다.

딸티코르간 성당 지하 교리실 2025. 5. 25.



시인 '아바이 쿠난바이울르'를 기리는 문화 행사

종교국 초청으로 카자흐스탄 국민 시인 '아바이 쿠난바이울르'를 기리는 문화 행사에 참여한 강 파우스티나 수녀(왼쪽)와 오 은영데레사 수녀 예르킨 생태마을 2025. 6. 18.



본당의 날 기념 미사

기념 미사 후 본당 신자들과 알마티 교구장 호세루이스 주교, 오 은영데레사 수녀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딸티코르간 성당 2025. 6. 22.



청소년 여름 캠프

딸티코르간 성당과 알마티 삼위일체 성당이 공동으로 진행한 청소년 여름 캠프에 강 파우스티나 수녀와 오 은영데레사 수녀도 함께했다. 코나예프 피정의 집 2025. 6. 23~28.



“보श्य, 그이가 오쟈아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넘어 오쟈아요”

아가 2,8

글 | 오은영 은영테레사 수녀



누령이 개와 부쩍 친근해진 필자.
아직 이름을 짓지 못했다.

대자연과 새끼 고양이 두 마리 그리고 누령이 개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삼 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파견된 첫해에는 한국과는 다른 문화와 풍경, 사람들의 낯선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름과 낯센 속에서, 한국에서의 삶에 비해 조금 느린 이곳의 속도에 대한 답답함과 언어와 소통의 어려움으로 제 마음은 마냥 작아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리지만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과 불편함 안에서의 행복을 찾아가며, 다름보다는 같음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의 삶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건 대자연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거대한 산과 아름다운 호수를 마주하면 하느님에 대한 찬미의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자연을 사랑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동물과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 다 무서웠습니다. 그런 제가 이곳에 와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버려진 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해 수녀원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정성으로 고양이를 돌보는 손길을 지켜보며 저도 조금씩 손을 내밀기 시작해 얼마 전부터는 고양이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녀원 식구가 된 새끼 고양이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깡마른 누런 큰 개 한 마리가 수녀원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로 ‘충분’했기에 개까지 키울 수는 없음을 공표했으나 순하디 순한 표정으로 꼬리를 흔드는 큰 개는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할 네 개의 발

대문 밖으로 내쫓아도 땅을 파서 다시 들어오고, 급기야는 옆집을 통해 2미터가 넘는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킁킁거리며 담을 넘는 모습이 안쓰럽고, 어찌나 애절해 보이던지 함께 살 수 없다고 다짐한 저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밥을 주면 정말 영영 나가지 않을 것 같아 밥을 주지 않기로 한 제 매정한 마음도 만만치 않게 완고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일주일간 본당 청소년 캠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34℃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던 참이라 매일 미사를 오는 갈리나 자매에게 우리가 수녀원을 비우게 되는 동안 텃밭에 물을 좀 주십사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갈리나 자매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미지와 함께 온 메시지의 내용은 그 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탱해 줄 두 손을 찾고 있었는데,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할 네 개의 발을 찾았어!’

청소년 캠프에서 돌아와 수녀원 마당에 들어서니 변함없이 꼬리를 흔들며 반기던 누렁이가 결국 저의 완고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서둘러 냉장고를 열고 열려 두었던 비켓딩어리 고기를 꺼내 삶아 주었습니다. 너무나 맛나게 먹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불어 살고자 합니다. 저 큰 개를 품에 끌어안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선교지, 아니 세상 끝 그 어디든 함께하시어 보호하시며 자비로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개와 새끼 고양이들을 통해 새로이 배우며, 더불어 함께하는 제 삶의 지평이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땅을 파고, 담을 넘는 집념으로
마침내 수녀원 식구로 합류한 누렁이



돌비석과 밭고랑 사이 우슈토베의 기억과 생명

글 | 강정숙 파우스티나 수녀



드넓은 우슈토베 대지에서
오은영 은영데레사 수녀(왼쪽),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오른쪽)와
함께한 필자

토굴을 짓고 맨손으로 일구어낸 황무지

1937년 9월 소련 당국은 극동 지역에 살던 고려인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이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실은 기차는 열흘 넘게 달려 낯선 땅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의 황량한 벌판에 멈춰섰습니다. 기차에 짐짝처럼 실려 온 그들은 집도, 음식도, 언어도 없었습니다. 삶의 뿌리를 통째로 뽑힌 이들에게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서로를 향한 체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은 매서웠고, 땅은 거칠었습니다. 허허벌판의 강추위를 그들은 땅을 파서 만든 토굴에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과 아이들을 생각해 죽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 그 차가운 겨울을 견디며 씨를 뿌렸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잠긴 그들을 맞아준 이들은 자신들도 가난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카자흐인들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우슈토베의 바람은 강하고 깊습니다. 이 바람은 수십 년 전 황무지에 밭을 디뎠던 고려인들의 한숨과 기도를 안고 흐릅니다. 그 바람을 따라가다 보면, 한 기념비 앞에 닿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곳은 원동(遠東)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라는 설

명과 함께 “카자흐스탄 민족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낯선 대지에서 시작, 그리고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박 씨, 강 씨, 한 씨… 이곳에 잠들다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는 고려인 묘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비석에 카자흐어, 러시아어, 그리고 한글로 새겨진 이름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박 씨, 강 씨, 한 씨… 이들이 살아낸 무거운 삶의 한 조각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언덕을 둘러싸며 넓게 펼쳐진 녹색 평야를 바라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대부분 황무지인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일구어낸 논과 밭입니다. 그 거친 땅을 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낫으로 풀을 베고, 삽으로 고랑을 팠습니다. 그들의 등에서는 땀이 흘렀고, 손바닥은 갈라졌지만, 마음속에는 침묵의 기도가 자라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걸었던 흙길은 트랙터가 다니는 너른 길이 되었고, 황무지였던 땅은 생명의 들판이 되었습니다. 고려인들의 고통, 인내, 근면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이곳에 살아 숨 쉽니다.

고려인의 자녀들은 이제 학교에 다니고,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익혀 이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슈토베를 비롯한 카자흐스탄 곳곳에서 고려인의 후손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의사, 교사, 예술가가 되어 지역을 이끌고, 카자흐인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당시 열차에서 내린 이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용기와 공동체 정신은 지금도 이 땅 위에 살아 있습니다. 우슈토베는 단지 고려인의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고려인과 카자흐인 두 민족이 고통 속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일구어낸 새로운 ‘고향’이었습니다.

돌비석은 과거를 지키고, 밭고랑은 미래를 품고 있습니다. 기념비는 이들의 고통을 새기고, 논밭은 그들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슈토베에서 잠든
고려인들의 돌비석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 8,12



성모상 앞 갈리나 파우스티나 자매

혼자서 묵묵히 또한 기꺼이

팔티코르간 성당의 갈리나 파우스티나 자매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미사에 옵니다. 참으로 검소해서 한 끼 빵 값이 되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한 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무료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갈리나 자매는 성가 반주를 합니다. 70대 중반인 갈리나 자매는 예전에 음악 선생님이었기에 성가를 무척 사랑합니다. 성가 번호와 가사를 거의 다 외우고 있어 지나가는 차의 번호판을 보며 그 번호에 해당하는 성가를 부르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서에 나오는 기도문도 거의 다 외웁니다. 예수 성심 호칭 기도, 성모 호칭 기도, 성 요셉 호칭 기도, 성인 호칭기도 등을 기도서를 보지 않고 선창합니다. 어떻게 기도문을 다 외우냐고 물어보니 매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카자흐스탄의 여름은 거의 40℃를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가끔 오는 비는 땅속을 흠뻑 적시지 못하고 더위만 살짝 식힐 뿐이어서 밭의 농작물과 화단의 꽃들은 매일 물을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당을 돌보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갈리나 자매는 거의 매일 오전 9시 미사가 끝나면 성당 화단에 물을 줍니다. 뜨거운 열기로 얼굴이 발개지고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작물과 꽃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간혹 특별한 일이 있어 수녀원을 비우게 되면 갈리나 자매에게 수녀원 텃밭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주 흔쾌히 텃밭을 돌봐 주고, 성당 소식도 전해줍니다.



대축일을 앞두고 성당 창문 닦기에 여념이 없는 갈리나 자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콘이 팔티코르간 성당에 모셔졌을 때, 갈리나 자매는 수요일 미사 후에 이콘 앞에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 바치는 9일 기도를 함께 바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요일 미사 후에 모두 함께 9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갈리

나 자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매주 금요일 성당 청소 날에 갈리나 자매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합니다. 청소 날에 참석하지 못할 때면 그 전날 미리 화장실을 다 청소하고 갑니다. 또 대축일 전에는 성당 창문을 모두 닦습니다. 부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등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창문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닦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갈리나 자매를 아주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혼자서 묵묵히, 기꺼이 봉사하는 자매의 향기를 맡으며 참으로 아름다운 분을 만나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팔티코르간 성당에는 신자들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천사 같은 갈리나 자매가 함께하기에 더불어 많이 배우며, 함께 뿌리 깊은 신앙을 키워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단과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은 갈리나 자매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글 | 윤니나

저는 카자흐스탄 딸티코르간 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12월부터 마리아의 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 자매가 저를 데리고 가서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기초과정과 중급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한국어를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 각 과정을 두 번씩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야 자매와 플로라 자매, 나의 손자 사무엘과 글로리아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글로리아는 축복받은 성경 읽기 ‘창세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그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OK Friends 캠프’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무엘과 글로리아는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님께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기독교 공동체와 소통하면서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한 살레시아 수녀님과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지만 모국어는 러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자 노력합니다. 언젠가는 저의 역사이기도 한 고향 한국에 갈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부모님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 살레시아 수녀님의 노고와 인내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는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Письмо благодарности

Я живу в Казахстане, г. Талдыкорган.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о доме «Мари», при католической церкви, где служан сёстры во Христе, как сестра Салесия Хан и сестра Тереза.

Начала ходить в дом «Мари» с декабря 2022 года. Меня привела сестра во Христе Юлия для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шли начальный курс и первый кур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тараемся проходить каждый курс по 2 раза для более тщате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 нам за это время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естра Зоя, Флора и мои внуки Самуил и Глория. Он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группе "Blessed New Bible Reading".

Два года назад они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для участия в лагерь «OKFriends» в Южную Корею, г. Сеул, где у них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актиковать кор. язык.

Они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сестре Салесии!

Сейчас Самуил уехал в Австрию, он

продолжает общение и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сещая собрание корейской христианской общины и продолжает и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нлайн у сестры Салесии.

Я корейка. Родной язык — русский.

В данное время очень хочу узнать свой родной язык. Знать больше о Корее и людях, проживающих в ней.

Знать историю Кореи.

Я верю, что придет время, и я увижу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Чувство гордости переполняет меня, что я тоже являюсь частью Коре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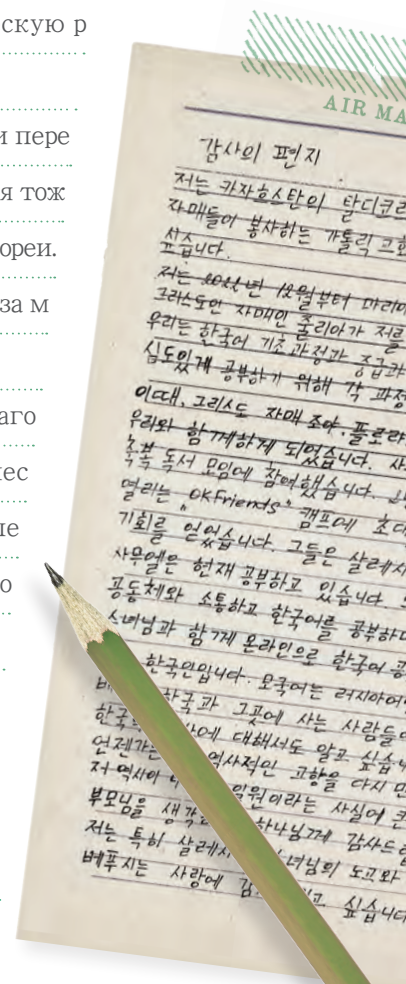
Благодарю Бога за моих родителей.

Хочу особо поблагодарить сестру Салесию за её труд, терпение и любовь, которую она нам даёт.

12.06.2025 г.

Нина Юн.

윤이나 자매가 한글로
정성껏 쓴 감사 편지



선교지 소식 베트남

동심킨더가든 응우한선 다낭 제1회 졸업식 및 수료식 2025. 5. 30.



▲ 제1회 졸업생 9명 중
대표 어린이가
백미현 글라라 수녀에게
졸업장을 받고 있다.



▲ 졸업식과 함께 진행된 수료식에서 교사 및 교직원
15명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아랫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백미현 글라라 수녀,
김희자 마리릿다 수녀

동심킨더가든 응우한선 다낭 한글 교실 2025. 6. 30.

▶ 한글 수업을 하고 있는 김 마리릿다 수녀와
장미반 어린이들



제2수련 수녀들 베트남 방문 땀하이 성당, 2025. 4. 27.



◀ 해외 선교지 체험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제2수련 수녀들이 땀하이 성당 어린이 행사에
참석해 사랑의 성심자가끼엳땀 수녀원
부스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사랑의 성심자가끼엳땀 수녀, 김미라 마
리엔 수녀, 하숙란 숙란모니카 수녀, 문연희 연희
세레나 수녀, 문선희 마리아 수녀, 홈 베드로
신부, 박영혜 마리빅토리아 수녀

장학생 가정 방문 2025. 5. 10.

▶ (오른쪽부터) 김 마리엔 수녀와 김재숙
시릴로 수녀가 짜안공소 부 신부,
화빈대 뚜 마르티노 선생과 함께
장학생 가정을 방문했다.



수련자 레티 탄 짜 마리비안네 수녀의 선종한 외조부 조문 2025. 5. 28.

- ▶ 김 시릴로 수녀와
김 마리엔 수녀가 조문하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선교사를 사랑하는 모임’ 베트남 방문 2025. 6. 23~27.



▲ 활동 내역 보고

동심킨더가든 응우한선 다낭 한글교실 2025. 6. 24.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전해 준 선교사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선사모’)
의 지난 5년 동안의 후원과 활동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김 마리릿다 수녀

▲ 선물 전달

후에 교구 호영장 공소 2025. 6. 24.
백 글라라 수녀와 김 마리릿다 수녀가
요셉 프억 신부와 함께 ‘선사모’가 주는 선물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딘 득 다오 요셉 주교 예방

동나이 지역 ‘득메 누이꾸이 성모 성지’ 내
운영센터 식당 2025. 6. 26.
베트남 쑤원록 교구 딘 득 다오 요셉 주교가
‘선사모’의 쑤원록 교구 이주민과 어린이에
대한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왼쪽부터 김 시릴로 수녀, ‘선사모’ 회원 김진숙 스
테파니아, ‘선사모’ 회장 김영옥 스테파니아, ‘선사
모’ 총무 임옥희 켄마, 김 마리엔 수녀, 딘 득 다오
요셉 주교, 차 풍(요한 드 라살) 지도사제

▲ 장학금 수여식

쑤원록 교구 찌안 공소 2025. 6. 26.
화빈대 두 마르티노 선생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사모’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선사모’는 매년 1회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
교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선교지 소식 필리핀

급식소 졸업 행사 나보마스 패스트푸드점 줄리비 2025. 4. 12.



- ◀ 급식소 어린이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6학년(40명) 졸업 행사를 했다.
왼쪽부터 김민정 루체 수녀, 정명숙 유딧 수
녀, 최지영 요세핀 수녀

고등학생·대학생 장학생들과 함께한 여름 행사

- ▶ (왼쪽부터) 김 루체 수녀, 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정 유딧 수녀,
최 요세핀 수녀 그리고 봉사자
야스퍼와 그레이스가 학생들과
함께했다.



마켓3 방문 2025. 5. 23.



- ▲ 방문길에 만난
급식 어린이들과 함께
왼쪽부터 정 유딧 수녀,
김 가브리엘라 수녀

따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2025. 6. 10.



- ▲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유치원 생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 요세핀 수녀

지역 프로그램 일일 참가 sawa 지역 공터 2025. 6. 17.



◀ 퍼시 자매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서 아이들과 컬러링 활동 중인 김 루체 수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천유수 유스티노 수사도 함께했다.

창세기 그룹공부 후 유치원 교실 2025. 6. 22.



▶ 창세기 그룹공부 후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조안나, 봉사자 크리스틴, 김 루체 수녀

오체아 가정방문 2025. 6. 26.



◀ 장학생 설지(오른쪽)와 그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다. 왼쪽부터 김 가브리엘라 수녀, 김 루체 수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설립 93주년 기념 미사 꾸바오 성 안나 수녀회 수녀원 경당 2025. 6. 27.



◀ 윤홍민 안드레아 신부 집전으로 선교교육공동체 수녀들과 함께 설립 93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했다. 왼쪽부터 최 요세핀 수녀, 정 유딿 수녀, 황지현 마르타 수녀, 김 가브리엘라 수녀, 김 루체 수녀, 정초롱 아녜스 수녀

선교지 소식 페루

노동자 성 요셉 축일 간가리 공소 주변 2025. 5. 1.



▲ 노동자의 수호성인 노동자 성 요셉 축일을 맞아 행렬에 참여한 김향련 마리후꼬 수녀와 사이디 자매, 김벨리 자매

완타 재래시장 방문 2025. 5. 24.



▲ 김 마리후꼬 수녀, 박은경 은경아네스 수녀가 아틀란타 선교사들과 함께 방문했다.

간또 그란데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간가리 수녀원 야외 성모상 앞 2025. 6. 26.



▲ 간또 그란데 레지오 단원들이 신영애 스페란자 수녀와 함께 간가리 수녀원을 방문했다.

BMI 선교팀과 김 마리후꼬 수녀(왼쪽), 신 스페란자 수녀(중앙), 박 은경아네스 수녀(오른쪽)

산 안토니오 빠두아 지역 불우이웃 방문

2025. 6. 12.



▲ 신 스페란자 수녀가 미국 보스턴 선교팀과 함께 방문했다.

성체 성혈 대축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공소 앞 2025. 6. 22.

▶ 성체 거동 행렬 중인 오스카르 주임 신부와 복사단 그리고 신자들



어머니의 날 카드 만들기 공부방 2025. 5. 9.



▲ 어머니의 날(5월 11일)을 앞두고 자신이 만든 카드를 들고 즐거워하는 공부방 어린이들. 송선영 리사 수녀와 공부방 교사들이 함께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꾸리아 설립 1주년

크리스도 엘 살바도르 본당 2025. 6. 26.



▲ 이순옥 글라리사 수녀(왼쪽에서 두 번째)와 양헬 가브리엘 신부가 영원한 도움의 성모 꾸리아 단원들과 함께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축일 급식소 2025. 6. 27.



◀ 9일기도를 마무리하고

특별 음식 빠차망카를 나누기 전.

송 리사 수녀(왼쪽), 이 글라리사 수녀(오른쪽) 그리고 봉사자들과 급식소 방문자들이 함께했다.

제27차 아미칼 모임 멕시코 과테말라 성 요셉 선교회 피정의 집 2025. 7. 7~11.



▲ 과달루페 성지 대성당 2025. 7. 9.

각 선교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 75명의 선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선교사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해외선교 교포사목위원회 총무 김동원 베드로 신부까지 총 76명이 함께한 이번 모임에서 성지 순례 중 한국어 미사를 봉헌했다.



▲ 강의 전 쉬는 시간 2025. 7. 8.

사도직 및 조별 나눔과 발표, 과달루페 성지 순례 등을 통해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랑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일치하며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본원 영양팀

기도로 짓는 밥, 사랑으로 차리는 식탁

탐방·정리 | 성모자매회



왼쪽부터 한 마리토마스 수녀, 김 빈센시아 수녀, 이 도르가 수녀, 콕 마리요셉 수녀, 임 마틸다 수녀

정성껏 씻은 쌀과 잘 다듬은 채소, 정갈한 반찬들 너머 수도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우리 수도회 본원 영양팀 수녀들이다. 영양팀은 현재 4명의 전담 수녀들과 전례 꽃꽂이 담당과 겸임으로 오전에만 영양팀 일을 돕는 수녀까지 총 5명으로 구성, 매일 70여 명 본원 수도자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내부 사도직이다.

사명과 정체성

본원 내부 사도직인 영양팀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좀처럼 앞에 나서지도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저 묵묵히 ‘사도직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는 영양팀의 사명은 그럼에도 더 깊고 더

넓다. 식단표 작성과 식재료 관리, 조리
와 배식 그리고 주방과 식당 관리까지—
조용히 그러나 정성껏 이어가는 흔들림
없는 일상 안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되,
언제든 손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함께
일하는 이들은 공동체를 위한 가장 본질
적인 섬김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원 식구 70명을 위한 식사 준비가 부담
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하느님께서 계획하
고 마련해 주신 것인 만큼 감사하는 마음
으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방은 하
느님 현존 체험을 위한 기도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지연 마리토마스 수녀

“개인적으로 숨을 고르는 시간을 이왕이면
본원 공동체 안에서 소임 할 수 있기를 청
했습니다. 주방 일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으로 개인적으로 노년기를 생각해서라도
주방 일을 좀 배워둬야겠다는 생각에 열심
히 배우는 중입니다.”

임선숙 마틸다 수녀

“줄곧 외부 사도직 소임을 했는데, 본원에
서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허
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위
한 선교사’라는 말이 있는데, ‘사도직을 위

한 사도직’이라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본원
수녀들의 영육에 힘을 줄 수 있는 일이라
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호임 마리오셀 수녀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만
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는 것
이 기뻐고요.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수도 생활을 할 수 있어 행복한
소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강은 도르가 수녀

일상과 주요 업무

영양팀의 하루는 아침 식사가 끝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 명이
한 달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 김치/냉장
고/안광 담당 업무에 따라 물품과 식재
료를 나눠 관리하고, 식사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를 한다. 그 틈틈이 식단을 짜
고, 조리법을 연구하고, 장을 보거나 각
분원에서 올라오는 식재료를 정리한다.
여기에 밑반찬 준비에서부터 김치 담그
기는 물론 피클 만들기, 빵 굽기 등도
영양팀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다. 단식일인 금요일 아침 시간에는 수
련소 수녀들과 함께 주방 대청소를 하
고, 텃밭을 돌보고, 유기농 퇴비도 만들
고, 주방 안팎을 정리하는 등 ‘식사 준



웃음과 감사가 피어나는 식사 준비

비를 위한 준비'를 한다. 이 많은 일을 하면서 수도 생활은 어떻게 할까? 일과 중에 쉬는 시간이 있기는 할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틈틈이 쉴 시간이 제법 있어요. 다른 소임의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죠. 수도 생활은 다 비슷해요.”

일반 식당에서라면 총괄 셰프라 할 수 있는 한 마리토마스 수녀가 부드러운 미소로 농치듯 대답하자 다른 수녀들도 웃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주방 일이라는 게 시계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데다가 열심히 할 때는 별로 표가 나지 않지만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세 표가 나는 일이 아니던가. 그

러니 ‘제법 쉴 시간이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소박하고 단순한 수도자의 식탁을 위하여

수도원의 식탁은 각자의 소임을 수행하느라 힘들고 지친 수녀들에게 힘이 되고, 회복의 손길이 된다. 그렇기에 영양팀의 역할은 단지 영양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하루 세 번 영육의 풍요로움을 더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식단 구성에서도 특유의 세심함은 빛을 발한다. 계절감과 전례력, 공동체의 건강과 영양 균형은 물론, 수녀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호도 고려한다.

우선 식재료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주변에서 선택한다. 당연히 국내산 식재료를 우선한다. 우리 땅에서 난 식재료는 우리 몸에 잘 맞기도 하지만 저탄소 배출로 환경에도 이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식재료로 익숙하지만 새로운 음식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조리법에 대해 늘 연구한다.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수도자의 식탁에 걸맞은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건강한 먹거리가 총괄 셰프의 고민이자 영양팀 전체의 관심사이다.

또한 수녀 개개인의 다양한 기호와 영양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다. 특히 중장년층 수녀들의 건강 상태를 많이 배려하게 되는데, 매끼 흰쌀밥과 잡곡밥을 함께 내고, 반찬도 매운맛과 순한 맛으로 나누어 조리하며,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수녀들을 위해서 두부나 생선 요리를 함께 내 단백질 섭취량을 맞춘다. 그뿐만이 아니다.

“본원 식당 한쪽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의 게시판이 있어요. 수녀님들이 저마다 원하는 메뉴를 적어 붙여놓는 곳이에요. 뭐든 일단 원하는 걸 붙여요. 그러다가 그 메뉴가 제공되면 메모를 떼어냅니다. 꿈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김미선 미션젼마 성모자매회 담당 수녀의 참언이다.

이 모든 노력은 식탁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영양팀 수녀들의 마음이란다. 그리고 이 마음은 곧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밥을 지으며 체험하는 영성

“식단을 짜고, 식재료를 준비하고, 다듬고, 조리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재료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수고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텃밭 '마리아의 뜰'에서 나는 싱싱한 채소들

무엇이든 부족하거나, 또는 풍성할 때 자연스럽게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한 마리티마스 수녀는 베테랑 영양사이자 총괄 셰프답게 영양팀의 모든 소임을 기도와 연관 짓는다. 그런 한 마리티마스 수녀를 비롯한 영양팀 수녀들과 함께 일하며 주방에서의 일뿐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자칭 주방 문외한, 타칭 나물 무치기의 달인 임 마틸다 수녀. 그는 좋은 것을 더 많이 나누고자 하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단연 최고라며 은근히 영양팀의 팀워크를 자랑한다.

“영양팀에서 소임 하며 많은 수녀님들을 대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치고 힘든 기색이 보이면 물이라도 한 잔 직접 떠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함께 심고 가꾸는 텃밭 '마리아의 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영양팀에서 소임하고 있다는 곽 마리오셉 수녀의 말이다.

영양팀 최장기(3년) 소임자이자 리틀 셰프로 명성이 자자한 이 도르가 수녀 또한 식사를 준비하면서 성모님의 모성에 대해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수녀들은 한 번 더 살피게 된다며 성모님의 마음으로 무장한 영양팀의 따듯한 속마음을 내비친다.

그리고 반복되는 주방 업무 중에서도 그 순간에 몰입하는 것,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것,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도라는 믿음으로 하느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한다고 영양팀 수녀들은 입을 모은다.

하나로 연결된 환경, 생명, 우리의 식탁

수도원의 식탁은 그저 배를 채우는 곳,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이상 마주하며 삶을 나누는 '신앙의 장'이자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영적 성장을 북돋우는 장소다. 지친 하루의 끝에 마주한 따듯한 밥 한 그릇, 정성껏 만든 반찬 하나가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수도원의 식탁은 공동체의 깊이를 더하고 관계를 엮는 중요한 공간이다.

영양팀 수녀들은 음식뿐 아니라 음식을 둘러싼 창조 질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저 하루하루 먹고사

는 문제만이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 수많은 피조물들과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결연해야 하는지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텃밭 ‘마리아의 뜰’도 가꾸기 시작했다. 텃밭을 가꾸는 데에는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 ‘밭을 갈지 않는다.’, ‘잡초를 뽑지 않는다.’, ‘(서로 보탬이 되는 작물들을) 함께 심는다.’, ‘벌과 나비를 불러들일 수 있도록 꽃을 심는다.’ 등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많지만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고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함께 지켜보는 중이다. 막상 텃밭을 만들고 나니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해 ‘텃밭 모임’도 만들어졌고, 얼마 전 ‘찬미받으소서’ 주간에 텃밭 전례도 했다고 한다.

식물의 다양성과 관계성에 대한 공부도 하고, 커피박이나 음식물 쓰레기로 유기농 퇴비를 만들어 땅도 되살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는 등 환경을 위한 소소한 일도 찾아가는 중이다.

4~5명의 수녀가 매일 7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종종 생긴다. 그래서 영양팀 소임



사도직 탐방을 마친 성모자매회 회원들과 함께

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어갈 수 없는 때가 찾아오기도 한다. 그렇기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방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여기에는 새로운 기계의 도입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는 서로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 마리토마스 수녀는 강조한다.

그러나 기도로 일용할 음식을 만들고, 사랑으로 수녀들의 영양을 돌보는 영양팀은 이미 환상의 팀워크를 기반으로 유연하고도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실현하고 있는 듯했다.

수도원 안에서 가장 바쁜 곳이면서도 가장 따뜻한 공간, 기도와 실천이 함께 어우러지는 역동적 공간, 그곳을 지키는 영양팀 수녀들의 정성스럽고 세심한 손길 덕분에 오늘도 수도원의 하루는 고요히, 따뜻하게 흐르고 있다.



설립 93주년 감사 미사

한마음 한뜻

“나는 늘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설립자이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기도의 반려자로 남겠습니다.”

- 목요안 몬시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와 한 몸을 이루어주신 주님,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머물렀던 목요안 몬시뇰의
삶의 모범을 따라 저희 또한
더욱 철저하게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봉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설립자 목요안 몬시뇰 John E. Morris M.M. (1889~1987)

한국 이름 목이세(睦怡世)

수도회 소식

설립 93주년
금·은경축
감사 미사
2025. 6. 27.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과 함께 우리 수도회는 설립 93주년을 맞아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총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성모자매회, 말씀의 봉사자, 후원회원 등을 초대하여 평신도 협력의 조력자가 되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와 이기헌 베드로 주교



▲ 축하 노래를 부르는 수녀들



서원 60주년 수녀(총 8명 중 3명 참석)와 27회 금경축(7명), 53회 은경축(총 17명 중 15명 참석)을 맞은 수녀들의 기념 촬영에 (앞줄 왼쪽부터) 이성만 토마스 신부(의정부 교구), 이기헌 베드로 주교(의정부 교구장), 마필운 필립보 신부(메리놀 외방 선교회), 송재남 알폰소 신부(서울대교구, 본회 거주 사제), 강요셉 요셉 신부(구속주회)가 함께 했다.

‘먼저 떠나 보는 평양교구 기차 여행’ 행사를 진행했다. 설립 100주년을 바라보며 수도회의 역사 안에서 수녀들이 파견되었던 곳들을 묵주알로 기도하며 방문하는 순례 여정은 평양 상수구리 모원에서 출발하여 7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 평양교구 기차 여행의 출발지 매표소에서 봉사하는 방미애 아가페 수녀



▲ 순례 여정의 첫 번째 역인 상수구리 모원 코너에서 장정은 악니다 초대 원장 수녀 등신대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앞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현숙 연희마리아 수녀, 김효정 마리세레나 수녀, 고민정 민정아네스 수녀



▲ 평양교구 기차 여행에 재미를 더해 주고자 성모자매회 회원들이 판매 카트를 끌고 다니며 추억의 옛날 과자와 음료를 나누어 주었다.



▲ 행사를 마치고 상수구리역 앞에서 사진 촬영하고 있는 김미선 미선젬마 수녀와 자매회원들



▲ 분단 이전 북한지역에 있던 성당과 북한 순교자들을 떠올리며 걷고 기도하는 ‘달팽이 순례’를 시작한 이상만 토마스 신부의 특강이 정릉성모교육원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성령의 주도(主導)로 창설(創設)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설립 9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창설을 주도해 주신 성령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또한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님과 공동체에 그리고 초창기 수도생활의 길을 이끌어 주신 장정은 악니다 초대 원장 수녀님과 초기 수녀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메리놀 외방 선교회와 그동안의 모든 은인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작은 한미하였어도

구세사의 시작은 참으로 한미(寒微)하였습니다. 나자렛의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서민이었고, 시골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는 부모와 함께 헤로데 왕의 포악한 마수를 피하여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처지도,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마리아 막달레나도 모두 가난한

민초(民草)들이었습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도 구세사처럼 한미하게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모든 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막달레나가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 수녀님들도 막달레나의 애타는 심정으로 성경 말씀에서 주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종인 나자렛의 마리아는 주님께서 교만한 자, 권세가, 부자들을 내치시고 미천한 이, 굶주린 이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심을 Magnificat으로 찬미하십니다(루카 1,46-55 참조). 우리 수녀님들도 그 찬미에 언제나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의 300년 박해가 끝나고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면서 신자들의 생활은 이완된 풍조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안토니오 성인은 박해 시대의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되살리기 위해 제도적이고 독창적인 생활을 창시(創始)하였습니다. 그것은 피 흘림이 없는 백색 순교로서 세상을 끊어버리고 기도하며 고행으로써 복음적 신앙을 되살리는 수도 생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00여 년의 박해가 끝나면서 1888년 프랑스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들어오고, 독일에서 성 베네딕도회 남녀 수도회가 들어왔습니

다. 그들은 한국에서 선교, 교육, 자선 등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도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수천 년의 문화를 가진 민족의 문명을 장애 없이 조화시키는 그리스도교 생활과 품행의 모든 요소에 동화’하도록 권고하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흐름이 주님께로 흘러가기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가 태어날 때는 나라도 없고, 힘도 없고, 가난했으나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발전 성장하여 경제적으로 세계 상위권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치계는 삼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치계, 종교계, 수도회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없으면 독선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문명은 막강한 힘으로 자신의 가치관, 관습, 제도를 다른 나라에 확산시켰으나 지금은 자기 민족의 고유 역사에 뿌리내린 습속, 언어,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아시아의 가치가 보편화되고, 물질적으로 발전하면서 문화적으로도 자기주장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서구의 강대국 중심에서 약소민족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도 페루의 가난한 산간 지역

출신 주교를 교회의 Papa, 큰 어른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는 복음 선교와 자선, 교육에 투신하고 가톨릭 성서모임과 성모자매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료도 선행도 없이 시작하였으나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 강이 되고, 그 강가에서 수목이 자라고, 온갖 물고기들이 생기고, 과수들이 생겨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 것(에제 47장 참조)에 비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이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께로 흘러가도록 우리는 그 길 앞에 말씀을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창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끊임없이 앞서 가시길 빕니다.

2025년 6월 27일

여주 시골에서 김수창 야교보 신부 드림

김수창



2025년
통합생태실행팀
인권 특강
2025. 6. 9.

우리 수도회 통합생태실행팀 주관 '2025년 인권 특강'이 본원 강당에서 열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 인권의 시대에 걸맞은 수도자의 삶>을 주제로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의 김민 사도요한 신부가 진행한 이번 특강에는 약 50여 명의 우리 수도회 수녀들이 참석했다.



2025년 유기서원자 전체 모임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및 한티 성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1티모 1,1)>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모임에는 재외국 소임 중인 5명의 수녀를 제외한 12명의 유기서원 수녀들이 참석했다.

▶ 피정의 집 문화영성센터에서 정선영 아셀 유기서원자 지도수녀(중앙 맨 뒤)와 12명의 유기서원 수녀들



유기서원자
전체 모임
2025. 6. 30~7. 4.

가톨릭성서모임
사도직세미나
2025. 7. 24~29.

가톨릭성서모임 사도직 세미나가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제주 성 이사돌 피정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영선 수녀(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의 <성경의 해석사 안내> 강의 후 성서사도직 자체 회의 및 안건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 중 3개 부서(가톨릭성서모임, 성서와함께, 성서연구소) 통합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제113회
수련식

2025. 8. 14.

제113회 수련식 말씀 전례가 황정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예수회)의 주례로 본원 성당에서 있었다.

- ▶ 수련기를 시작하는 수녀들.
왼쪽 아래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경은 테오도시아 수녀(테오도시아), 왕승연 요한글라라 수녀(젬마), 레 티 탄 짜 마리비안네 수녀(안나)



성모자매회 소식

제53회
첫 서약식
2025. 6. 16.

6월 월봉헌일을 맞아 제53회 첫 서약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첫 서약식에서는 서울본부 4명의 자매와 부산지부 2명의 자매가 첫 서약을 했다. 부산지부 장은주 헬레나 지부장(왼쪽 오른쪽 끝)과 이경옥 안토니나 담당수녀(아랫줄 오른쪽 끝)도 참석해 첫 서약하는 자매 회원들을 축하했다.



▲ 아랫줄 왼쪽부터 채성희 엘리사벳 자매(서울), 정진 글라라 자매(부산), 이재숙 글라라 자매(서울), 홍문숙 베로니카 자매(서울), 서영주 루시아 자매(서울), 하성임 아나시아 자매(부산)

◀ 정회원들도 서약 갱신을 통해 수도회의 설립 정신과 영성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찬양팀
발족

2025. 7. 14.



- ▶ 자매회 찬양팀이 발족하여 성가 지도를 맡은 김충희 호세아 수녀와 첫 모임을 가졌다. 찬양팀 28명의 자매회원들은 본원 강당에서 자기소개와 각자의 지향을 생각하고 쓰는 시간을 가졌다.

월봉헌일

2025. 7. 14.



- ▶ 성모자매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로 함께하는 김수창 야고보 신부의 축일(7월 25일)을 맞아 자매회원들과 김미선 미션즈매, 정순남 심포로사 담당수녀들은 정성스럽게 작성한 손글씨 카드와 단체 사진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다.
- ▶ 오후에는 각 지역별로 회칙 3항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예비회원들과 신입 회원들은 대강당에서 김춘희 바울리나 자매로부터 성모자매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준회원식 이후 착복하게 되는 단복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임원 워크숍

2025. 7. 28.



▲ 정릉성모교육원 소강당에서 16명의 임원들과 담당수녀들은 회원 양성과 돌봄, 지부 활성화 방안, 그리고 2026년도 연간계획 등에 대해 토의했다.

평신도
협력

김지선 필로메나 회장 외 자매회원 3명은 매주 수요일(마지막 주 제외) 본원 도서실에서 기록보존실 담당 조예진 순선스텔라 수녀의 지도로 정순남 심포로사 수녀(왼쪽)와 함께 수도회 분원과 사도직 일기 종합본 목차 작업을 하고 있다.



월봉헌일

2025. 5. 26.



▲ 성모성월을 맞아 자매회원들과 이경옥 안토니아 담당수녀는 성모님께 봉헌할 꽃을 준비했다.



▶ 월봉헌일 일정을 마치고 각 지역 별로 운봉산 마을 주변을 산책하며 친교를 나누었다.

월봉헌일

2025. 6. 23.



▶ 지난 6월 16일 서울본부에서 첫 서약을 한 하성임 아나다시아 자매와 정진 글라라 자매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안토니아 담당수녀가 서울본부에서 진행되었던 첫 서약 준비 피정과 첫 서약식의 이모저모에 대해 자매 회원들에게 전해주었다.

▶ 자매회원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앞두고 예수 성심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다.



| 시애틀 |

- ▶ 겟세마니 묘지에서 거행된 초창기 회원 장정순 말가리다 자매 하관식에 자매회원들과 이형욱 크리스토폴 담당수녀가 참석했다.

장정순
말가리다
자매 선종
2025. 5. 12.



월봉헌일
2025. 6. 23.



-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설립 93주년과 성모자매회 미주지부 설립 35주년을 축하하는 미사를 마치고, 이 크리스토폴 담당수녀와 자매회원들은 미사를 집전한 김다을 클레멘스 신부와 기념 촬영을 했다.

| 남가주 |

- ▶ 오후 2시부터 월봉헌 기도와 나눔 후 야외 성모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월봉헌일
2025. 5. 18.



월봉헌일
2025. 7. 20.



- ◀ 예비회원 2명이 서울본부 월봉헌일(7월 14일)에 참석한 가운데, 전배경 엠마 담당수녀는 예비회원들에게 성모자매회 회원으로서의 삶과 사명에 대해 설명했다.

| 깐가리 |

- ▶ 요셉동 거실에서 박은경 은경아네스 담당수녀와 자매회원들은 생일을 맞은 세나이다 자매를 축하하며 다과를 나누었다.

월봉헌일
2025. 7. 1.



월봉헌일
2025. 6. 5.



- ▶ 아야꾸초 살바도르 피네로 대주교 집전으로 4명의 자매들이 준회원식을 거행했다.
- ▶ 준회원식을 마친 자매회원들이 구속주회 에드와르드 신부와 신영애 스페란자 수녀, 김향련 마리 후꼬 수녀 그리고 박 은경아네스 담당수녀와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 둘째 줄 왼쪽부터 난시 자매, 비르마 자매, 세나이다 자매, 후아나 자매

월봉헌일
2025. 6. 10.



월봉헌일
2025. 7. 8.



| 비야 엘 살바도르 |

- ▶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의 첫 서약 허락서를 받고 감격하는 자매회원들에게 이순옥 글라리아 담당수녀는 첫 서약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 ▶ 자비의 수녀회 모란 수녀로부터 3대 서약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한 후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소울핏 피정, 하느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시간

글 | 샘플모임 우윤희 마리모세 수녀

한 달에 하루,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

소울핏 피정은 기도를 배우고 싶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청년들의 갈망에 응답하고자 샘플모임에서 만든 피정 프로그램입니다. 체력을 단련하는 피트니스클럽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근육을 키워주는 영혼의 피트니스클럽이라는 의미로 ‘소울핏(SoulFit) 피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The Desire, 갈망’을 주제로 열린

3월 소울핏 피정에서 청년들과 함께한

우윤희 마리모세 수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쉽 없이 달려온 청년들은 정작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지나치게 의식하면서도, 하느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의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지치고 상처받은 청년들이 한 달에 딱 하루만이라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소울핏 피정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시작한 소울핏 피정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영적인 갈망을 채우고자 모인 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함께 걷는 여정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The Desire, 갈망’, ‘Who Are You?, 나의 정체성’, ‘Familiarity With The Lord, 주님과과의 친밀감’ 등의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을 만나는 감각들을 다시 일깨우며 나 자신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했던 이 시간이 힘이 되고 빛이 되기를

소울핏 피정은 이나시오식 관상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관상기도를 처음 해 보는 청년들이 많아서 곧바로 기도에 들어가게 하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상황을 이미지로 그려 볼 수 있도록 관상 안내 글을 읽어줍니다. 문장을 따라 한 단계씩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 안 깊숙한 곳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웅크리고 숨어있던 나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체 현시가 되어있는 성전 안에서 청년들은 주님의 눈길 아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체험을 합니다.



본원 성당에서 기도하는 청년들



샘물모임 수녀들과 청년들



‘Familiarity With The Lord, 주님과의 친밀감’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서윤희 필리보네리 수녀

처음 해 보는 기도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나눔을 어색해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마스하게 비추는 주님의 시선을 느낀 그들은 다시 소울핏 피정을 찾습니다. 잠시나마 주님의 숨결을 느꼈던 수도원에서의 이 시간이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기를, 그렇게 일상 안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 경 숙	김 명 희	김 연 숙	김 태 권	문 복 자	박 희 숙	신 봉 자
강 대 환	강 미 진	김 영 경	김 태 은	문 정 순	방 영 숙	신 상 희
강 설 순	강 민 경	김 영 숙	김 태 호	문 태 성	배 경 재	신 성 옥
강 영 례	강 상 옥	김 영 옥	김 평 수	민 영 석	배 순 원	신 숙
강 영 옥	김 말 순	김 영 자	김 현 경	민 옥 기	백 금 례	신 정 택
강 현 숙	강 선 이	김 영 희	김 현 동	박 기 분	백 인 자	신 중 현
강 현 주	김 선	김 옥 순	김 현 미	박 기 자	변 상 원	심 금 화
고 경 옥	김 숙	김 용 각	김 현 숙	박 문 규	부 정 민	심 명 옥
고 순 례	김 명 애	김 유 미	김 형 진	박 미 숙	서 명 동	심 재 경
고 예 리	김 미 경	김 윤 순	김 혜 숙	박 미 향	서 복 순	안 대 인
고 은 실	김 미 원	김 은 순	김 호 중	박 상 규	서 애 선	안 선 영
고 현 순	김 미 희	김 은 실	김 호 선	박 상 준	서 연 희	안 천 일
공 석 초	김 범 수	김 은 영	김 희 숙	박 선 영	서 영 주	안 혜 영
곽 숙 자	김 분 자	김 은 희	김 희 순	박 소 연	서 예 진	양 경 철
곽 신 영	김 상 희	김 인 배	김 희 영	박 소 영	서 정 한	양 규 진
권 분 연	김 석 용	김 정 미	나 승 경	박 영 진	서 주 혜	양 성 후
권 선 미	김 석 준	김 정 선	나 주 연	박 영 철	선 군 자	양 영 은
권 영 숙	김 선 희	김 정 순	남 기 란	박 재 숙	손 미 산	양 정 희
권 진	김 성 천	김 정 옥	남 상 민	박 정 숙	손 병 윤	양 현 숙
권 태 영	김 소 각	김 종 각	남 윤 건	박 정 자	손 주 영	엄 경 용
권 혜 란	김 소 정	김 종 료	남 일 현	박 준 희	손 춘 영	엄 해 옥
권 화 집	김 수 연	김 종 석	노 경 희	박 진 휘	송 미 경	여 성 숙
김 경 순	김 순 덕	김 종 옥	노 윤 희	박 참 슬	송 영 례	여 효 정
김 경 신	김 순 례	김 지 선	노 치 권	박 태 수	송 영 호	오 나 래
김 금 련	김 순 희	김 진 원	동 복 원	박 현 자	송 윤 경	오 두 현
김 기 복	김 승 현	김 진 한	류 상 조	박 형 호	송 윤 순	오 수 정
김 길 여	김 시 연	김 차 선	류 원 백	박 혜 경	송 주 라	오 승 목
김 동 순	김 안 선	김 춘 희	막달리스	박 혜 신	신 동 현	오 은 미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

오 창 선	윤 혜 연	이 소 연	이 종 진	장 복 념	정 영 진	차 효 경
오 행 옥	윤 홍 자	이 수 진	이 중 길	장 성 렬	정 윤 희	채 현
오 현 정	은 영 재	이 숙 자	이 중 희	장은유	정은숙	채 성 희
오 혜 숙	이 경 진	이 순 영	이 지 연	장 재 연	정의정	채 희 갑
원 미 자	이 경 희	이 순 자	이 지 영	장 재 원	정 춘 자	최 슬
유 병 주	이 귀 자	이 승 분	이 지 희	장 희 윤	정 태 아	최 경 옥
유 소 영	이 그 림	이 안 희	이 진 태	장 희 정	정 향 란	최 금 란
유 인 숙	이 금 숙	이 연 심	이 창 순	전 상 민	조 경 배	최 기 중
유 재 숙	이 기 학	이 영 미	이 춘 화	전 세 현	조 규 하	최 미 수
유 정 선	이 덕 아	이 영 빈	이 치 영	전 정 민	조 성 희	최 민 구
유 정 현	이 동 선	이 영 원	이 현 재	전 종 성	조 영 광	최 복 희
유 지 영	이 무 경	이 영 주	이 현 숙	전 주 리	조 영 이	최 수 미
유 진 희	이 문 희	이 영 환	이 현 희	전 주 윤	조 옥 현	최 연 규
유 찬 영	이 미 경	이 용 순	이 혜 주	전 주 희	조 은 경	최 연 옥
유 태 안	이 미 나	이 은 경	이 혜 진	전 춘 실	조 인 숙	최 영 림
유 하 경	이 미 령	이 은 옥	이 희 병	정 경 희	조 정 순	최 영 주
유 한 진	이 미 선	이 은 정	이 희 정	정 광 영	조 지 윤	최 윤 숙
유 효 숙	이 미 정	이 은 흥	임 경 자	정 남 숙	조 진 현	최 윤 혜
유 희 정	이 미 희	이 은 희	임 명 숙	정 대 진	조 현 숙	최 은 경
윤 경 임	이 민 희	이 재 숙	임 민 아	정 미 다	조 혜 옥	최 일 혜
윤 대 인	이 상 분	이 재 현	임 상 무	정 민 경	조 휴 동	최 제 원
윤 맹 선	이 상 일	이 재 호	임 순 영	정 성 희	조 희 선	최 지 현
윤 명 자	이 석 순	이 정 민	임 승 옥	정 수 훈	주 비 호	최 진 옥
윤 미 숙	이 선 근	이 정 연	임 영 규	정 순 남	주 재 로	최 진 희
윤 선 미	이 선 형	이 정 현	임 윤 자	정 애 경	주 하 나	최 해 인
윤 시 림	이 선 호	이 정 효	임 정 화	정 양 희	진 기 순	최 홍 원
윤 재 성	이 선 희	이 정 희	임 화 용	정 연 숙	차 경 자	최 희 순
윤 혜 련	이 섬 주	이 제 식	장 년 수	정 연 택	차 윤 수	표 순 분

하 광 희	진영서 · 노희경	고석준신부
하 동 기	나보따스장학회	김일영신부
하 애 란	대방수산(주)	장동하신부
하 현 정	로이드선급노조	서울대교구 한강성당
한 구 병	리치로지스틱스이군	수원교구 범계성당 21구역
한 귀 자	마태오연수헌금	부산교구 남천주교좌 성당
한 기 철	문우당서점	부산교구 두왕성베드로성당
한 인 숙	미소회(김나현)	부산교구 범서성당
한 재 범	병원사목위원회	부산교구 복산성당
한 진 선	본도시락	부산교구 삼산성당
한 평 섭	부산평협	부산교구 서대신성당
허 남	서울성모외래간호	부산교구 성바오로성당
허 희 선	서지현(윤지원)	부산교구 야음성당
현 명 옥	성모자매회	부산교구 월평성당
현 복 자	성서모임4지역	부산교구 천곡성당
현 정 일	세리윤윤성업	부산교구 청학성당
현 진 호	수지 고르다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홍 도 경	수지성서이웃돕기	부산교구 거제동성당 들국화회
홍 문 숙	엘케이케이	부산교구 망미성당 해외선교후원회
홍 미 영	유일화사	부산교구 안락성당 해외선교후원회
홍 보 근	이태원(시원유통)	빈첸시오 박인철
홍 순 필	제이엔지조엘리	부산교구 안락성당 빈첸시오회
홍 은 정	(주)미창	부산교구 우정성당 빈첸시오회
홍 진 숙	(주)유나이티드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빈첸시오회
황 규 택	(주)인동FN	수원교구 백석동성당 빈첸시오회
황 수 연	(주)주영화학	수원교구 범계성당 빈첸시오회
황 승 옥	(주)지후	춘천교구 임당동성당 빈첸시오회
황 애 현	(주)한양정밀	사회복지분과
황 윤 서	(주)홍진경	서울대교구 강일동성당 성서모임
황 윤 자	ABC동호회	서울대교구 대치동성당 성서모임
황 춘 자	서울대교구 이경상 주교	
황 희 경	이학노몬시놀	이외 다수의 익명 후원자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설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2025년 6월 27일부터 100주년 설립 기념일인 2032년 6월 27일까지
수도회의 역사 안에서 수녀들이 파견되었던 곳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방문하는 순례의 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마음으로 봉헌하는 기도 안에서 묵주기도로 벽돌을 굽고 구운 벽돌을 모아 쌓으며
상수구리 모원에 정릉 본원 성당 규모의 성전이 건립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더불어 100주년 설립 기념일 미사도 상수구리 모원에서 봉헌할 수 있기를 염원해 봅니다.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묵주기도로 순례한 거리(km)와
구워낸 벽돌 수를 제출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순례 기도에 동참하시며 모아 주신 한 달간의 거리와 벽돌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URL 설문을 통해 집계한 내용입니다.

※ 벽돌 수와 순례 거리 집계 내용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홈페이지(<https://solph.or.kr/>)를 통해 매월 업데이트됩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는 설립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순례 기도 여정을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 소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수도회의 순례 여정에 동참하여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T. 02-2171-1500

국 내

영원한도움의성모의집 해돋이공부방

49032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돋이3길 412 (청학동)
T. 051-416-1361

- 김재숙 빅토리아 수녀
M. 010-2044-0243

H.O.M in 수지

1682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63번길 10
(동천동)

- 오현주 벨베뚜아 수녀
M. 010-9240-4627

H.O.M in 속초

24904 강원도 속초시 중도문길 87 (도문동)
T. 033-633-0243

- 김재근 아만다 수녀
M. 010-9711-1530

영원한도움 평화센터

03076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51 (혜화동)

- 이선중 로마나 수녀
M. 010-8701-0369

해 외



베트남 VIETNAM

호치민

HO CHI MINH

174/35 Tam Châu, Tâm Bình, TP Thủ Đức,
TPHCM 71300 VIETNAM

- Sr. Mariann Kim, SOLPH(김미라 마리앤 수녀)
M. +84 76 907 4487
E. rose-mira@hanmail.net
- Sr. Cyrilo Kim, SOLPH(김재숙 시릴로 수녀)
M. +84 76 861 0247
E. skgod299@hanmail.net

다낭

DA NANG

Số 20 Trần Hữu Độ Phường khuê Mỹ, TP Đà
Nẵng, 550000 VIETNAM

- Sr. Maririta Kim, SOLPH(김희자 마리릿타 수녀)
M. +84 90 378 6101
E. kimheeja1214@gmail.com
- Sr. Clara Back, SOLPH(백미현 글라라 수녀)
M. +84 78 949 1860
E. cl583@hanmail.net



카자흐스탄 KAZAKHSTAN

탈디코르간

TALDYKORGAN

Katolic Church Biazhan sal 145 Taldykorgan
140008, KAZAKHSTAN

- T. +7 7282 245 002
- Sr. EunyoungTheresa Oh, SOLPH
(오은영 은영데레사 수녀)
M. +7 775 960 2731

E. eyt633@hanmail.net

- Sr. Salesia Han, SOLPH(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M. +7 702 196 1770

E. hansalesia@daum.net

- Sr. Faustina Kang, SOLPH
(강정숙 파우스티나 수녀)

M. +7 775 694 2019

E. Srfaustina@hanmail.net



페루 PERU

칸가리

CANGARI, HUANTA-AYACUCHO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10, Huanta Ayacucho, PERÚ

H. cafe.daum.net/solph-peru

E. cangariperu@hotmail.com

- Hna. EunkyungAgnes, Park
(박은경 은경아녜스 수녀)

M. +51 932 449 968

- Hna. Marie Hucco Kim
(김향련 마리후코 수녀)

M. +51 958 733 136

E. mhucco07@gmail.com

비아 엘 살바도르

VILLA EL SALVADOR, LIMA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0066, Lima 35, PERÚ

T. +51 1 292 2327

H. cafe.daum.net/solph-peru

E. villaperu@hotmail.com

- Hna. Clarisa Lee(이순옥 클라리사 수녀)

M. +51 937 411 504

- Hna. Lisa Song(송선영 리사 수녀)

M. +51 958 736 605

리마 선교센터

CANTO GRANDE, LIMA

Jr.Carlos De Los Heros 738 Pueblo Libre 15084, Lima, PERÚ

T. +51 1 359 5855

- Hna. Speranza shin(신영애 스페란자 수녀)

M. +51 920 753 030

E. smsprz@hanmail.net

- Hna. Immanuel Park(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M. +51 986 501 518

E. manuel592@hanmail.net



필리핀 PHILIPPINES

나보따스

NAVOTAS

San Lorenzo Ruiz Parish(Tahanan ni Maria) Phase 1-C Kaunlaran Village, Navotas 1409 Metro Manila, PHILIPPINES

T. +63 2 8652 7714

H. cafe.daum.net/solphphilppin

- Sr. Gabriela, SOLPH(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M. +63 969 174 6992

E. gabi59@hanmail.net

- Sr. Judith Joung, SOLPH(정명숙 유딧 수녀)

M. +63 939 332 4146

E. ju395@hanmail.net

- Sr. Luce Kim, SOLPH(김민정 루체 수녀)

M. +63 960 554 1272

E. sisterluce@hanmait.net

- Sr. Josephine Choi, SOLPH(최지영 요세핀 수녀)

M. +63 928 421 0722

E. josephine.657@daum.net



조향순 소피아, 「메리안 공원 연못」, 스위스 바젤, 2018

후원 문의

국 내

02706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정릉동)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T. 02-2171-1657

한진선 요셉데레사 수녀
M. 010-2082-6035
E. srjthan@hanmail.net

- 후원자 중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미주지부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U.S.A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U.S.A.
T. +1 714 521 1345

Sr. Emma Jeon, SOLPH
(전배경 엠마 수녀)
M. +1 714 383 3585
E. emma2171@hanmail.net

- 미국에서 후원하기를 원하는 분은 미주지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후원금 송금

국내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038659-00305
국민은행 036137-04-005886
신한은행 100-027-67786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해외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910004-74004
국민은행 036137-04-001127
신한은행 140-006-01075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02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2-18, Solsaem-ro, 15ra-gil, Seongbukgu Seoul 02706, Rep. of Korea
T. +82 2 2171 1500 | F. +82 2 2171 1629